

여야 내년 총선 역대급 물갈이 예고

새누리, 힘지 출마·단수 추천제 등 전략공천 확대 새정치, 신인 가산점제·신당 변수에 정치신인 유리

내년 총선에서 역대급 물갈이 쓰나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대 국회에 대한 여론이 최악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새로운 인물 수혈로 내년 총선에서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진박 진영의 압박으로 전략공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야권은 신당 창당 등의 지형 변화로 혁신 경쟁이 가열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의 경우,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기류가 강하게 형성됐다는 점에서 탄핵의 폭풍이 몰아쳤던 지난 17대 국회에 맞먹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물갈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당초 김무성 대표가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현역 의원의 재공천 비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가 논란 끝에 사실상 폐기된 가운데 힘지 출마론 등을 계기로 전략공천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당장,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당의 텃밭인 영남권과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총선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 '진실한 사람'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현역 물갈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당내 진박계는 당헌·당규가 허용하는 단수·우선추천 제도를 전략공천의 범주에 포함하면서 전략공천의 확대 적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공천제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서류 심사 강화를 통한 '컷오프' 도입에 공감대를 모았으며, 진박계는 더 나아가 경선에서 1, 2위간 '결선 투표제'를 확대함으로써 현역 교체 시도를 하고 있다. 인위적인 물갈이를 반대했던 김무성 대표는 힘이 부치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하위 20% 현역의원 교체를 공식화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의 재제작업을 착수한 상태다. 배제 규모는 시행 세칙이 마련된 지난 11월 현재 현역 의원 127명의 20%인 25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평가위 관문을 넘어서도 '물갈이' 작업은 계속 이어져 일각에서는 50%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경선률 도입 과정에서 신인 가산점 제도 및 결선투표제가 채택됐기 때문이다.

현역보다 인지도가 낮은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유리한 출발선상에 서도록 하고, 경선 최다 득표율이 전체의 50% 미만일 경우 결선을 치르게 함으로써 도전자에게 유리한 장치들을 마련해왔다.

이와 함께 안철수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의 통합신당 창당이 속도를 내며 새정치연합 현역 국회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신인의 진입무대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발언 SNS 도배는 정치적 테러”

임내현 무소속 의원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탈당과 동시에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정치적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27일 주장했다.



이 언론을 통해 '성희롱 논란'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를 했지만, 새누

리당은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까지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참작돼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현재 계류 중이며, 2년여 동안 잠잠했는데 탈당과 동시에 또 다시 이를 '특정 정치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임 의원은 “당시 기자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와 두 차례 거절했지만, 계속된 요청에 어느 강연의 강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전했다”면서 “참석자들의 분위기는 좋았지만, 한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면서 '성희롱 논란'으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당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대선 불복'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정권과 야당을 강하게 비판해온 데 대한 '미운털'이 박혀 단순한 식사자리 '농담'

리당은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까지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참작돼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현재 계류 중이며, 2년여 동안 잠잠했는데 탈당과 동시에 또 다시 이를 '특정 정치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탈당하기전에 '탈당시 이 문제로 발목을 잡겠다'는 비공식적 이야기들을 들은적 있다”며 “당시 그 발언이 문제가 됐다던 지금까지 어떻게 정지를 할 수 있었느냐? 그런데 이렇게 앞뒤를 다 자르고 일부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중증장애인 단기보호센터 복구에 꼭 유치”

이형석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

이형석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는 27일 중증장애인 단기보호센터의 복구유치를 약속했다.



우 일시적인 사유로 보호가 불가능할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예비후보는 “보호자와 중증장애인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면서 “10년 넘도록 선거 때만 되면 등장했던 장애인전용 숙박 문제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의 경

이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장애인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증장애인의 숙원사업인 단기보호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설의 복구 유치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단기보호센터는 가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의 경

“여야, 조속히 선거구 확정해 혼란 막아야”

임한필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임한필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는 27일 “여·야 지도부는 하루빨리 선거구를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야 지도부는 가능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

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246개 선거구에서 733명이 등록한 예비후보자를 대안안에 빠뜨리지 말라”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12월 31일을 넘기면 246개 선거구가 무효화되고 선거구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대안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주 내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한다”

본법 등 행정법안을 선거구 확정안과 분리해서 협의하고 먼저 선거구 획정을 해야한다”면서 “이날까지 여야가 선거구 확정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지체없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청하는 '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 실현을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희망·더불어...

새정치 새당명 '톱5' 압축

모두 '민주' 단어 포함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모집한 새로운 당명 중 'TOP 5' 후보군을 추려 마지막 설문 여론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심사단계에까지 오른 5개 새 당명안은 '희망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민주소나무(당)' '새정치민주당' '함께민주당'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이들 후보를 28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 보고한 후 최종 결정을 위한 설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총 3200개 후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2800여개가 추려진 후, 당내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5개 후보로 압축됐다.

당명 공모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손해원 홍보위원장은 전날(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그는 “저는 애초에 민주를 넣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나 총 후보안 중 60%의 이름에 민주가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이 전율을 느낀 당명은 '민주소나무당'이라며 “곧고 푸른 '소나무'같이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제안자는 당명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 공천위 현역 심사 강화... 단수·우선 추천 유지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대 총선 후보 공천에서 단수·우선추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현역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단수추천과 우선추천제도는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있는 현 방안을 유지키로 했다”면서 “특정 후보가 현직하고, 월등한 경쟁력을 갖췄다면 후보로 추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박(진 박근혜)계에서는 단수·우선추천제를 전략공천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어 향후 결정 과정에서 전략공천을 반대하는 비박계와 공방이 예상된다.

이어 황 사무총장은 “후보자의 자격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공천 부적격 기준을 높여기로 했다”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당규(공직후보자 심사 제9조)에는 부적격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 ▲파벌적인 범죄 전력이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 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한 자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앞서 진박계인 김태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상향식 공천은 좋은 제도이지만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문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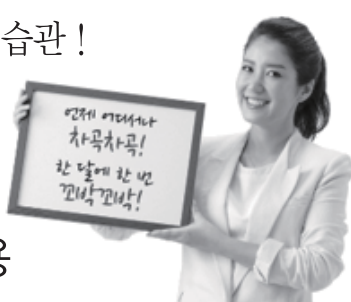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